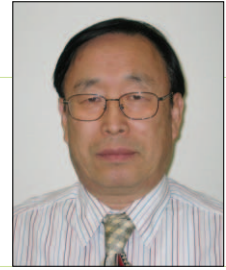


2006, 대학도서관의 과제



김종은*

2004년도 한국대학도서관수는 435개(2003년에는 439개. 이하 같음.), 직원은 3,831명(3,814), 장서수는 90,099,890책(86,152,907), 연속간행물수는 359,816종(386,283), 대출책수는 32,801,051책(69,883,517) 도서관 열람자수는 67,866,690명(67,504,544)이다. 2003년도에 비교하면 대출책수와 연속간행물 종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2006년도 대학도서관의 과제로는 첫째, 도서대출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자료이용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예산감소, 인력감소, 자료감소)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저작권법의 시급한 개정이다. 디지털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사서의 전문성 취약으로 대학 내에서나 지식정보 사회에서 주도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이다.

첫째, 도서대출의 감소 문제와 대책을 살펴보자.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대출책수가 2000년 110,528,109책에서 2004년도에는 77,727,058책으로 30%나 격감했다. OECD 28개국의 대학도서관은 도서대출량이 늘어난 반면 유독 우리나라 대학만 대출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대출량 감소는 디지털도서관 운영, 서고의 개가제에서 찾는다. 그러나 외국 대학도 유사한 환경이지만 대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연구해야 한다. 우선 내부적으로 국내서의 복본 구입, 개가자료실의 신착자료실화(5년 간 신착자료비치와 구간자료의 별치), 도서기호에 연대기호 추가(신·구간 구분), 오배열 상시 점검, 분실방지기의 유지보수 또는 노후 장비의 교체, 대출담당 직원의 넘치는 미소와 친절(미소는 전염된다. 많은 이용자가 찾아온다), 부재도서의 재구입(이웃 도서관의 자료도 안내), 독서 이벤트 제공, 희망도서 신청 및 처리, 도서대출 차별화 전략(오래된 우수고객에 추가 대출, 예약제, 신간도서 대출기간 단축), 자료실 환경 꾸미기(조명, 실내장식, 환기, 온습도, 소음, 바닥 처리, 출입문 구조 등), 대화채널의 상설(교수와 대화, 작가와 대화, 관장과의 대화), 자료이용시간 연장(2시간 더 근무하기, 야간 근무조 배치시 24시간 개방), 자료접근이 편리한 분관 설치, 이용홍보 등이 연구 등이 강화 된다면 대학도서관의 도서대출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의 시급한 개정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지식강국·문화강국이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디지털도서관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 디지털도서관은 동사되고 만다. 따라서 국제규범인 베른협약 등에서는 각국의 저작권법의 제한 및 예외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5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또는 5년이 경과한 디지털 자료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캠퍼스 밖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도서관

* 우리 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사서서기관, kimche27@snu.ac.kr

간의 통상적인 디지털정보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대학도서관은 원하고 있다. 디지털자료의 복사 전송권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보상금도 도서관이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액의 결정시에 대학도서관 관계자 참여, 과금기의 표준 보급과 설치비용 지원(관계 부처), 저작자의 동의 없는 비영리 연구목적의 논문자료 전송 허용 등을 대학도서관은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금시스템의 애매모호한 '잠재적 피해보상' 제도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제성이 없는 서비스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이를 충분히 수용하는 방향에서 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저작권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출판물의 이익보호에 있다고 본다면, 출판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국내 출판물의 복본 구입 등으로 적극적인 출판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도서관이 출판문화 발전에 있어서 동반자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셋째, 사서의 전문성 문제와 그 대책을 살펴보자. 요즘 대학도서관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이 화두이다. 업무의 전산화로 사서의 머리로 해야 할 일들이 컴퓨터로서 처리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서의 할 일이 줄어든 반면, 다른 전문성 있는 업무가 개발되지 않아서 사서직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사서에게 물어 볼 궁금증도 포털사이트에서 해결해 주고 있어서 점차 사서의 손을 덜 거치게 된다. 이에 사서는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시간을 내서 배워야 하는 일)로 획기적인 이용자 서비스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1,000명의 사서가 주제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1,000개의 주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의학정보사서, 법률정보사서, 농업정보사서, 노동정보사서, 해양정보사서, 동물정보사서, 식물정보사서, 인구정보사서, 아동상담사서, 독서치료사서 등 주제사서의 양성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양성된 주제사서들이 주제자료실에서 주제와 관련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며 맞춤형서비스(SDI, 인터넷 참고정보원 구축, d-Collection 제공 등)를 이용자들에 제공한다면 사서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자격증 제도의 개선과 자체 업무분장, 도서관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서들에게 많은 견학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 듣고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관의 서비스활동 개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경영사례를 폭넓게 견문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우수한 도서관은 좋은 시설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사서가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이 우수도서관은 또 다른 도서관의 모범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우수한 도서관은 이용자와 긴밀한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이용자들이 사서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 공간을 구성한다.

지금까지 2006, 대학도서관 과제로 도서대출의 감소 문제, 사서의 전문성 등을 살펴보았다. 2006년 8월에는 서울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열린다. 2006년 대학도서관들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문도서관으로 지정된 대학도서관들은 충분한 준비로 해외 손님들을 맞이해야 한다. 사전에 관련 대학 간의 정보 교환을 당부한다. 대학도서관인들과 함께 대학도서관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